

투데이 칼럼

민선6기 뒤흠라에 어수선한 부안군정

정권이 바뀌면 과거 정권 부패 비리나 적폐(積弊) 청산하느라 새 정권이 정작 할 일을 못하는 경우가 흔하다. 중앙정부도 그렇지만 지자체 실시 이후, 지자체장이 바뀐 일선 시군도 이전 지자체장 당시 저질러 놓은 일로 상당 세월을 허비하는 일이 많다. 뒤흠라에 끼리 하느라 지역발전 공약시행은 둘째치고 지역 이미지 실추와 선량한 공직자 사기저하까지 초래한다. "은 방죽을 미꾸라지 몇 마리가 흐려놓은 결과다."

요즘 부안군 상황이 바로 그렇다. 민선 6기 김중규 군수 시절, 각종 사건에 대한 재판이 끝나지 않아 민심을 혼란시키고, 부실공사 의혹도 제기된다. 우선, 2016년 '울포만 해안철혈탐방도로' 개설공사에 담당과장이 공갈 미수로 징역 1년에 2년 집행유예, 감독관은 징역 6월에 2년 집행유예로 지난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파면된 사건도 부안군 이미지 실추와 함께 선량한 공직자까지 도매금으로 취급당하는 상황이다. 2016년 부안을 '물의 거리 가로등'

공사 관련 업체로부터 뇌물수수 혐의로 담당이 징역 6월에 2년 집행유예, 벌금 1천2백만원을 선고 받고 대법원에 계류 중이며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민선 7기 권익현 군수 앞길에 발목을 잡고 있다. 최근 특정인론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진행된 허수연 언독 하수관로 정비사업 1차 공사에 갓 벌로 땅을 매워 도로포장 침하 및 공사비 부풀리기 등 부실공사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부안군은 감사팀에 토목 직인력 1명을 추가 배치해 현장 및 설계도면 사실조사 등 자체감사에 나섰다. 감사결과 위법사항 발견 시 법적 조치 하는 등 철저하게 의혹

을 규명기로 했다. 이 밖에도 군은 공사비 부풀리기와 관련해 슈트파일 등 기타 여건변경 물량에 대해 최종 분 설계변경으로 감액 조정을 했다. 지난 7월2일 취임한 애꿎은 권익현 군수는 부안군 상사·하서면 일원을 비롯한 언독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부실공사 의혹이 제기되자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할 것을 특별 지시했다. 지난 8일 권익현 군수는 "감사팀에 토목 직인력보강 등을 통해 철저히 감사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법적 조치 등 엄정 처리하라"며 "향후 공사 관련 각종 비리가 한 건도 발생치 않도록 감시·관리체계를

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 등 뒤흠라에 정신없다. 이와 관련된 부안군 자체감사 결과 내용을 보면, 도급사인 (유)태립 종합건설과 불법하도급 계약 체결과 현장 투입자재는 설계내역서 상 자재물량과 상이하며 퇴매우기 불량 토사용 등 설계서와 다르게 부실시공 여부에 촉각이 모아진다. 일련의 민선 6기 시행한 사업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형이 최종 확정돼 공직자가 파면되거나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이 진행되며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감사 및 조사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입장이다. 미꾸라지 몇 마리가 방죽을 흐려놓으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전전 김중규 군수는 아직도 수감 중인데 직전 김중규 군수 시절 각종 사건이나 사안비리 의혹으로 민선 7기 권익현 군수 발목을 잡고 있다. 수많은 공약이행 등 갈 길은 먼데 과거 문제로 청소하다가 세월을 보내야 하겠는가? "뒷물이 흐리면 아랫물도 흐르다"는 말처럼 민선 7기 청렴도 향상 공약이 제대로 실현되기를 고대한다.



이 옥 수
지방부안주재 국장

사설

폭염 대책이 있어야

최악의 폭염이 계속 되면서 온열 질환자 사망자와 물놀이 사고 사망자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다. 8월 중순에 접어들었지만 체온을 웃도는 열기가 꺾일 줄 모르고 있는 것이다. 우리 전북 지역에만 온열 환자가 173명이나 발생해 다섯 명이 숨졌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피서지에서 발생한 물놀이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 119 출동 건수가 32건에 사망자가 다섯 명에 이르고 있다는 보도이다. 그런데 사망자의 다수가 어른들이라서 여러동절계 하고 있다. 조금만 주의하고 경계하면 될 것을 방심하다가 아까운 목숨을 잃고 있는 것이다. 확실히 여름을 더위는 특별히 심하다. 1994년도의 더위와 비교해도 그렇다. 연일 맹위를 떨치는 지금의 더위는 대책이 있어야겠다. 온열질환 사망자와 물놀이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는데 심하게 불 일이 아니다. 환경부가 저번에 발표했던대로 전북 지역이 폭염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속수무책으로 있어선 곤란하다. 폭염에 취약한 지역으로 전주시 완산구와 익산시와 전주시 덕진구가 전국에서 1위와 2위와 3위를 기록한 것은 매우 답답한 일이다. 군산시를 비롯해 다른 시군

들도 오십보백보 수준이 아닐 수 없다. 다들 폭염 장기화에 따른 폭거노인 사망사고를 예방하려는 대책이 있어야겠다. 대통령과 정부는 지금의 폭염을 재난 상태로 보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전국 곳곳이 체온을 훨씬 웃도는 기온을 보여주더니 강원도의 홍천이 심리적 마지노선 기온인 40도를 넘어 41도를 기록했다. 1942년도의 '대구 40도'가 76년만에 깨진 것이다. 서울도 1994년도의 32.4도의 기록을 훌쩍 넘어 39.6도라는 새기록을 사람들의 뇌리에 각인시켰다. 우리 전북 지역도 불볕 더위는 마찬가지로서 연일 체온을 웃도는 열기에 허덕이고 있음은 물론이다. 그런데 환경부는 전북의 어느 시군 할 것 없이 폭염 취약 지역으로 지목하고 있으니 열려가 된다. 폭염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지금 전북도는 대책이 있어야겠다.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기에 이쪽에 사선이 쏠려 있어서 그렇지 패한 가족 수들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돼지 피해도 크지만 특히 가금류 피해가 극심하다. 이러다가는 해당 농가들의 파산이 우려된다. 전국에서 전북의 피해가 가장 크다는 보도이다. 전북도는 그에 대해서도 대책이 있어야겠다.

독자제언

데이트 폭력 혼자 앓는 10대들

"부모님은 제가 남자친구 있다는 사실도 몰라요. 그런데 데이트폭력을 당했다는 얘기를 어떻게 해요." 최근 3년간 데이트폭력 10대 피의자가 787명에 달했지만 부모, 교사에게 말 못하고 또래친구들에게만 상담하다보니 딱히 해결책 없이 더욱 문제만 커지고 있는 상태이다. 대전의 한 여고생은 동갑내기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하고 욕설을 퍼부었고 남자친구의 행동이 더욱 폭력적으로 변했지만 "학생은 학생답게 공부하고 대학교 가서 연애해라"는 말에 여고생은 주변 어른들에게 도움을 청하지 못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데이트폭력으로 체포된 피의자 6003명 가운데 10대 청소년이 195명(3.3%)을 차지했다. 10대 데이트폭력의 원인은 성인과 비슷하다. 처음에는 연락에 집착하다가 욕설을 하고 상대방의 사생활에 개입하는 정도가 늘어 나면서 결과적으로는 물리적 폭력으로까지 이어진다. 하지만 이를 방지할 경우 지속적인 폭언, 폭행, 성폭행, 감금, 마지막에는 살인 등 끔찍한 강력 범죄로 발

현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피해학생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피해자들은 이를 부끄러워 숨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여야 하고, 혹시나 신고로 인하여 보복범죄가 두렵다면 가까운 지구대, 파출소를 방문하여 '신변보호요청'을 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으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꼭 112에 신고를 하도록 하자. 그리고 경찰청은 갈수록 증가하는 데이트폭력에 대하여 '연인 간 단순 폭력 행위 뿐 아니라 스토킹행위에 대해서도 적극조치하고 있다. 또한 수사 종결 후에도 보복범죄 등 2차범죄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관리를 하고 있으므로 망설이지 말고 신고를 하여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학부모나 교사들도 10대 피해당사자가 경험을 털어냈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해주고 해결방안은 제시해 주는 것을 기억하자. 김나운 정읍경찰서 상동지구대 경찰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휴가철로 덩 덩 빈 아테네의 중심도로



최근 그리스 수도 아테네 중심도로 모습. 휴가철로 덩 덩 비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도송동 568-80 승주빌딩 4층

SOC 대동맥 구축 전략 마련해야

내년 예산과 관련해 전북도의 선제적인 대응이 있어야겠다. SOC 대동맥 구축을 위해서 더욱 힘내야 한다는 주문이다. 도민들이 바라는 바, 그 구축의 정도는 얼마아마한 것도 아니고 욕심 사나운 것도 아니다. 도민은 전북도가 오래전부터 들려준 수준의 교통 인프라를 기대해왔다. 전북도가 예전에 했던 말은 전국 어디든 교통망이 2시간 내에 연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게 아직도 희망사항에 그치고 있다. 전북도는 동서철도 건설이며 새만금 공항과 신항만을 건설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는데 여태 시도조차 못하고 있다. 도민들은 전북도의 SOC 대동맥 발전과 관련해 가는 기대가 컸다. 그것은 그만큼 지역 발전을 앞당기는 걸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게 아직은 청사진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다. 그래서 여기 먼저 짚어볼 것이 있다. 전북도는 그것을 말한만큼 그것을 실행할 능력을 키워야 한다. 그것은 아쉽고 비전이 청사진 구상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기에 하는 말이다. 물론 전북도의 SOC 확충 의지는 당연하고도

바람직한 것이다. 하지만 그 당면함이 현실에서는 매번 벽에 부딪히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정부가 전북 지원을 약속했음에도 돌아가는 현실을 보면 녹록치 않다. 전북도는 동서철도며 새만금 신항이며 새만금 공항 등 건설 의지를 보여줬는데 여태 시도조차 못하고 있다. 각 지자체마다 정부에 더 많은 예산을 요구하며 손을 내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역대 정부의 일처리 방식을 보면 지역 차별 의도가 역력했는데 현 정부도 오십보백보 수준이지 않다. 상황이 이러므로 전북도는 내년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더욱 열심히 뛰어라 한다. 이번에 이낙연 총리가 전북 군산을 방문했는데 이번만큼은 반드시 성과가 있어야겠다. 일행과 함께 일본 사할 동국사를 구경하는 수준으로 그렇게 해선 안 된다. 전북도는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응감해야겠다. 도민들이 바라는 바는 내년도의 예산이 대폭 증액돼 7조원대에 진입하는 것이다. SOC와 관련해서 도민의 기대하는 것은 큰데 매년 그에 못 미치고 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